

'콘체르탄테-토스카' 장엄하고 성스러운 분위기 압도



'토스카' 1막에서 성가대가 부른 찬미곡 '테 데움'은 장엄한 분위기로 좌중을 매료시켰다.

스크린에 떠오른 성 안드레아 성당 내벽은 곱이 있어 사투 인상적이었다. 성화(聖畵)를 그리던 주인공 '카바라도시'의 평탄하지 않은 운명을 암시하는 듯 했다.

무대 곳곳에 수 놓인 성자들의 프레스코(석회와 모래를 섞은 그림)는 성결했지만 여딘가 '불안'한 느낌을 자아냈다. 교황과 성직자들이 합창할 때도 왠지 모를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떤 기도도 비탄의 운명 앞에서 소용 없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 1일 저녁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 '콘체르탄테-토스카'는 격정, 비정, 열정이라는 세 단어로 대변될 만한 작품이었다.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비극적 수작을 오케스트라 협주곡 형식인 '콘체르탄테'로 선보였으며, 악곡과 서사가 충실히 재현된 느낌이었다.

작품의 배경은 1800년 6월 17일 단 하루.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프랑수아르 이후 로마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지정극' 형식으로 표현했다. 작중 성당 화가 카바라도시(테너)와 경시총감 스키타(바리톤)의 대결이 혁명과 군주제 옹호론자의 경합으로 읽혔다.

검은 눈의 여인 토스카(소프라노)를 두고 경쟁하는 카바라도시와 스키타의 모습은 인상적,

광주시립오페라단, 공연 성료 푸치니 3대 오페라 비극적 서사 비극적 운명, 사랑의 파멸 다뤘

드라마틱한 서사는 푸치니의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시립오페라단의 레퍼토리를 가미해 이채로웠다.

아름다운 토스카를 떠올리는 카바라도시의 아리아 '오묘한 조화'와 장엄한 찬미곡 '테 데움'이 울려 퍼질 때는 성스러운 분위기가 관객을 압도했다. 극한의 고통을 묘사하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가 흘러 나오자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오페라 '토스카'는 빅토리아 사르두의 대표작 '타 토스카'를 기반으로 주세페 자코자, 루이지 일리카가 대본을 썼다. 여기에 푸치니가 작곡한 음악 악을 입힌 것.

푸치니는 생전 '예술은 일종의 병이다'고 언급할 정도로 예술에 대한 집착과 열정이 남달랐다. 무대에 사용되는 종소리와 성가대의 무대 장식 등을 직접 점검할 만큼 디테일했다.

이날 공연은 원작에 등장하는 고문실, 파르네제 궁, 모든 인물의 죽음 등을 철저히 극화해 '토스

카'에 반영했다. 그러면서 푸치니의 병적 고뇌를 퇴폐적 아름다움으로 그려 관객들에게 비극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예술감독과 연출은 김지영이 맡았다. 지휘는 최승환·이준(합창)이, 토스카 역에 김라희가 출연했다. 카바라도시 역에 이다윗, 스키타 역에 김성국, 성당지기는 김형준 등이 출연했다. 또 광주시립합창단과 클랑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줬다.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의 목소리도 울려 퍼졌다. 어린이 성가대는 간단한 안무와 목소리만으로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실수로 유발된 비극을 '하미르티아'라고 정의한 뒤, 이를 가장 훌륭한 비극이라고 칭했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토스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었다. 토스카에게 약한 '의도'는 없었지만 한 순간의 실수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기 때문, 그녀는 실수와 욕망·엇갈린 사랑으로 안젤로티, 스키타, 카바라도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결국 그녀는 성벽에서 투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

깊이가는 가을, 한번쯤 우리를 사유하게 하는 '비극'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무등산 호랑이'가 내려온다

광주예술의전당 상설공연, 11월부터 매주 일요일 광주공연마루



'무등산 호랑이'에서 공연자들이 시그니처 포즈를 선보이고 있는 장면.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뉨 제작>

무등산 호랑이를 모티브로 꿈과 희망, 호국과 민주화 정신을 담아낸다.

광주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2023 광주상설공연에서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와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뉨가 '무등산호랑이'를 선보인다. 11-12월 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치평동 1163-2)에서 총 9회에 걸쳐 진행.

무등산에서 할멈과 밭을 매고 팔죽을 먹으며 살아가던 개똥이는 우연히 천 년 전,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호기로운 호랑이와 광주의 자연을 상상하며 그 시절을 꿈꾼다.

한편 천하제일 호랑이를 뽑는 '천하제일 호랑이' 대회에서, 호랑이들은 각기 자신의 재주(축방울, 농주, 버나, 팡팡 등)를 부리며 뽐낸다.

풍물 실력으로 으뜸을 가리는 경연에서 최고의 호랑이가 나타나, 먼 옛날처럼 광주지역에 공정의 기운을 가져올 수 있을까. 공연은 옛 무등산(무등산)을 소재로 아이들의 꿈, 희망, 호국정신, 민주

주의 정신 등을 녹여낸다는 계획.

태평소(오강식), 해금(김단비), 생황(장유진), 아쟁(김하린) 등 기악과 팽과리(황인상), 징(김수연), 장구(신수자), 모듬북(임영석) 등 타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으며 공현지가 소리를 맡았다.

불, 불, 바람, 흙을 다스리는 '사신(四神) 춤'도 볼 수 있다. 하늘의 기운과 정기를 빌어 아기 호랑이를 탄생하도록 돕는 대목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정재일, 장병아 등 안무.

한편 이와 맞물려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무등산호랑이시리즈 3편 그림책 '개똥이와 무등산호랑이-천하제일 호랑이'를 출간했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뉨 김현무 대표는 "광주와 무등산을 소재로 펼쳐지는 연희극에 국악을 입혔다"며 "공정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공연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한호 수필가, 한민족문화예술대전 대상

수상작 '마음의 꽃'

수필가인 김한호 평론가가 최근 제28회 한민족 문화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마음의 꽃'.

이번 작품은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수양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연기념물 고분배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문체가 유려하고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수필가는 수상 소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시나 소설은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겠지만 수필은 작가의 진솔한 삶이 드러나는 문학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며 "수필은 인간적인 문학이므로 앞으로 독자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 출신인 김한호 수필가는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ROTC 장교로 임관하여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하면서 전남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경상국립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중·고등학교 교감, 교장을 역임했다.

저자는 지난 2021년 '한국현대수필가 100인



김한호

선' 시리즈 일환으로 펴낸 '하늘 메아리'라는 작품집에서 글에 대한 단상 등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30여 년간 글을 써오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됐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사랑과 행복, 아름다운 자연, 이웃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필가는 1994년 '한국수필'에 수필, 2001년 '문학춘추'에 평론으로 등단해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200여 편의 수필을 발표했으며 한국현대수필작가 대표작선집 '하늘 메아리' 외 10권을 펴냈다. '21세기 한국교육 희망을 말한다' (공저)는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최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전남문학상, 광주문학상, 국제PEN광주문학상, 제10회 대한민국 문학대전에서 세종문학상을 수상했다.

익숙한 풍경 '기억 속의 향기'

박구환 개인전, 26일까지 소암미술관

매일 매일 보는 풍경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나 새로운 관점이 있을 뿐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풍경도 사실은 수년간 반복해서 봐온 장면이다.

판화작가 박구환의 작품 속 풍경은 정겹다. 누구나 한번쯤 봤을만한 정경들은 오랜 고향의 모습처럼 잔잔함을 준다. 어린 시절 봤던 익숙한 풍경과 그 풍경이 환기하는 아련한 기억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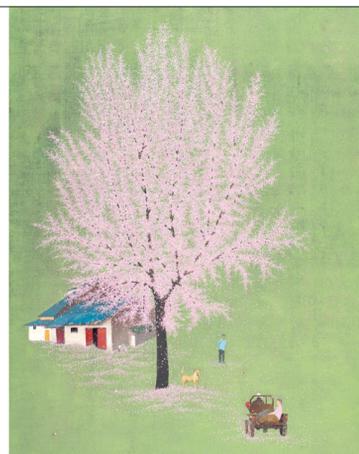
박구환 작가의 '기억 속의 향기'전이 열린다.

오는 26일까지 소암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추억 속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다정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작품 속 바다와 산, 들밭과 나무 등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어린 시절

봤던 시골마을의 풍경, 학교를 오가며 스치듯 지나쳤던 산과 나무들을 고스란히 화폭에 옮겨온 듯하다.

그동안 박 작가는 판화작가로 광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 10년간 판화와 유화의 기법을 접목해 탐색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판화의 선명한 색감과 유화의 생기 넘치는 붓 터치가 가미된 작품에서는 작가가 고안한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배어나온다.

양호열 소암미술관 학예연구사는 "박구환 작가가 새롭게 탐색한 작품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지나온 시절의 풍경과 감성,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우리를 기억의 상당부분은 자연과 연관된 풍경이라 해도 될 만큼 친숙하다"고 말했다.



'In full bloom M220208'

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